

한국의 대 유네스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4차 회의 회의록

2007. 8. 3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

1. 일시 : 2007년 8월 31일 (금요일)

2. 장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층 회의실

3. 참가자 (가나다 순)

강대근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원장
김경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기석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엄상현 교육인적자원부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승철 경향신문사 논설위원 (외교분야)
이승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
정봉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안전망지원센터 수석연구위원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장
최연구 한국과학문화재단 홍보실장
최은옥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 (前 유네스코 대표부 서기관)
허운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

4. 진행순서

17:00 - 17:10 인사말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7:10 - 17:15 참가자 소개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장)
17:15 - 17:45 주제발표 : **한국의 유네스코 협력 실태 및 개선 방안**
(발표 : 엄상현 교육인적자원부 경남교육청 부교육감)
17:45 - 18:10 주제발표 : **유네스코 현황 및 대유네스코 활동 제고 방향**
(발표 : 최은옥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
18:10 - 18:55 주제 토론 (사회 :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장)
18:55 - 19:00 맺음말
19:20 - 21:00 만찬 (조선히otel 지하1층 일식당 '스시 조')

5. 주요 내용

가. 인사말 (이삼열 사무총장)

대 유네스코 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단히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의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재진출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 유네스코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 유네스코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왔음.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참가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길 희망하며 한국의 대 유네스코 활동 강화에 기여하길 희망함.

나. 주제발표 (엄상현 부교육감)

'한국의 유네스코 협력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의 적극적인 유네스코 활동이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유네스코 정규예산의 2%(분담금 순위 11위)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분담금이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의 활동을 해야함. 둘째로, 과거 우리나라가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당시 유네스코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이제 갚아야 할 때가 되었음. 셋째로, 국제무대의 전면에서 서서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참여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유네스코에서 2년6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유네스코 조직에 대한 문제점들을 느낀 바 있음. 현 마츠우라 사무총장은 취임이후 약 25%의 직원 감축을 단행하는 등 조직의 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으나, 지난 2004년 봄, 169차 집행이사회에서 영국대표단을 비롯한 수개의 회원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와 같이 개혁의 지체와 지속되는 비효율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음. 즉 유네스코 조직 변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있어 한국이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되길 희망함.

이처럼 한국이 유네스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즉, 국제관계에서

유네스코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 기관들의 노력을 유도, 조정하고 협력토록 하는 역할은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러한 전략적 틀 안에서 유네스코 참여가 강화되어야 함. 아울러 유네스코로 하여금 어떠한 국제적 사업을 진행시키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함. 즉,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진출을 고려함에 있어, 유네스코 의사결정과정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함.

한편, 정부 공무원 업무 특성 상,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유네스코 관련 업무를 수행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음. 설사, 몇 년간 유네스코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하더라도 보직이 변경되면, 그러한 경험들이 사장되기 쉬운 것이 현실임. 이러한 측면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해야하며, 유네스코 본부진출 혹은 대표부 파견을 통해 유네스코 본부와 한위와의 연결고리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함.

아울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기능 전환이 이뤄져야 함. 그동안 한위가 국내 사업에 치중했었다면, 앞으로는 대 유네스코 정책참여업무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두어야하며, 국내 현장사업들은 유네스코 협회연맹 등 국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이러한 기능전환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가 함께 지원해야 할 것임.

끝으로 OECD DAC, UNICEF, EC 등을 포함하는 국제기구가 출원한 총 원조금의 약 7%가 교육부문에 투자된 점, 유네스코 사업 예산 중 교육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 유네스코 활동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문의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

다. 주제발표 (최은옥 과장)

'유네스코 현황 및 대 유네스코 활동 제고 방향'

유네스코 주요 현안과 관련 이번 제34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될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34C/4)의 특징(우선순위: 아프리카, 양성평등, Inter-sectorality, Result based management), 차기 2개년 예산 (현 미화 610백만불 → 648백만불(안)), 유엔 개혁 추진과정에서 유네스코의 역할, 주요사업 II 및 III 개혁 논의, EFA 2015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부문 개혁 추진 등을 소개함.

한편, 대 유네스코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과 관련, 유네스코의 다양한 사업 분야별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아울러 유네스코 총회 및 집행이사회, 각종 정부간위원회, 공여국의 모임인 Geneva Group 모임, ASPAC 지역그룹 모임 등 유네스코의 주요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함을 강조함.

이처럼 한국이 유네스코 주요 정책 및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의 유네스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연계.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외교부 본부의 총괄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관계부처의 유네스코 정부간 기구 활동 참여 확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총괄, 조정, 자문 역할 강화 (특히, 자체사업 또는 타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 사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대 유네스코 정책개발을 위한 think tank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 이 필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현 주프랑스 대사의 유네스코 대표부 임무 겸임의 문제와 제한 사항을 지적하고 유네스코 독립대표부 설치 및 대표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라. 주제토론

- 김기석 교수 : 유네스코 내 주도그룹에 대한 부연을 부탁함.
- 최은옥 과장 : 유네스코 공여국 모임인 '제네바 그룹'을 들 수 있음. 유네스코 총회, 집행이사회와 달리 비공식회의 임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이외에도 유네스코 총회, 집행이사회 등 주요 회의의 핵심의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사무국과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유네스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엄상현 부교육감** : 유네스코 조직의 문제,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 등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조직을 지금까지 지탱시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유네스코 사업의 대의명분 때문이라고 생각됨.
- **정봉근 위원** : 도덕적 위험 (Moral Hazard),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 등은 월드뱅크와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 이를 극복해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유네스코 개혁 논의의 소용돌이에 함몰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아울러 이를 위해 국내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함.
- **김영식 총장** : 우리의 위상에 맞는 활동을 펼치기 위한 Action Plan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 선진국들과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와 함께,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 국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아울러 유네스코 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전문가 양성 방안 등이 계획되어야 하며, 이러한 틀 안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도 검토되어야 함.

국제사회에서의 교육 분야 수요 및 교육수출을 통한 잠재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영역을 효과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교육 ODA 사업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러한 교육 분야 ODA 사업이 경제를 비롯한 다른 분야 ODA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ODA 사업을 재정부에서만 독점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하여 국가적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김경애 원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현재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에 여성개발원의 초기 모델(여성개발 및 양성평등 교육사업)을 설립하는 사업을 고려중에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의 실행에 있어 2008-2013 유네스코 중기전략의 우선 관심 주제로 언급된 아프리카와 양성평등과 어떻게 연결 될 수 있는지 묻고자 함.

- 최은옥 과장 : 유네스코 중기전략 및 사업 계획서에도 아프리카 및 양성평등은 최우선 관심분야로 분류되고 있음.
- 이삼열 총장 : 유네스코의 사업들 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EFA 사업을 꼽을 수 있으며, Universal Primary Education을 그 목표로 삼고 있음. 그런데, 이 목표를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취약한 지역이 아프리카이며, 아프리카 내에서도 여성들이 가장 취약한 그룹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최우선 관심 대상으로 아프리카와 양성평등을 강조함.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기관 간의 협회가 반드시 필요함. 아울러 그 동안 국내 사업에 치중해왔던 한위사업의 무게 중심을 국제협력 분야, 특히 유네스코 의사결정과정 참여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함. 이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주요 회의 참가 전 내실 있는 회의 참가 준비가 이뤄져야 하며,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의견 조정이 이뤄져야 함. 끝으로, 유네스코 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희망함.

- 김영길 총장 : 개도국 인재 양성 등 교육 사업을 통한 커다란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유네스코 외교가 중요함. 우리나라의 교육 콘텐츠를 유네스코, OECD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 많은 나라들에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의 일환으로 새로운 마케팅 방법 모색 등이 필요함.
- 이승환 본부장 : 엄상현 부교육감과 최은옥 과장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의견들에 공감함. 이런 의견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혹은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함. 한국인의 유네스코 진출 문제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었음. 일본의 경우, 다자간 기구 일본인 직원 진출 현황표를 바탕으로, 연도별 파견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함.

또한, 실질적인 유네스코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함. 아울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기능, 특히 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

- 최연구 실장 : 유네스코 사업 중 과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느껴짐. 그러나 2007년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27위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이 7위로 기록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과학부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과학부문 활동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 강화에도 기여하리라 생각됨. 이런 측면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과학사업 강화에도 노력해주길 바람.
- 이승철 논설위원 :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다자외교에 있어 큰 발언권을 갖지 못해왔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스스로 유네스코가 어디로 가야하는 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됨. 따라서 이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유네스코 대표부 독립공관화와 관련, 유네스코 독립 대표부를 설립하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외교관 자리를 하나 늘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음. 과거 유네스코 독립 대표부를 가지고 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유네스코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유네스코 대표부에 파견된 적이 없었던 것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게 됨.

우리나라에서 대미외교 혹은 대북외교를 해야 출세하는 외교가의 분위기를 볼 때, 유네스코가 주된 관심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렇다면 주기적으로 보직이 순환되는 공무원 보다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유네스코 대표부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됨.

끝으로, 유네스코 외교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함.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대 국민을 대상으로 보다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의 사업을 홍보

하는데 에 노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허운나 : 우리나라 정부가 유네스코 전체 비전을 그려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한위 스스로의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유네스코의 비전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비전의 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실행 계획이 준비되고 실천되어야 함. 개도국에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됨. 특히, IT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세계 최고임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만큼, IT를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임.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개별적, 산발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여타분야 사업과의 조율, 조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